

만민이 하나로!

'2019 세계 선교의 날' 행사 소개 및 작년 '만민하게수련회' 때 불치의 유전병을 치료받아 행복한 인도 암릿 쿠마 성도의 편지.

'팔복' 시리즈

궁핍히 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며, 연약함을 강건케 하신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네요"

빌미를 잡고자 교회에 나왔다가 설교에 은혜받고 하나님 권능까지 체험해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고 고백하는 권태덕 집사.

성령의 역사로 행복한 신앙생활

콜롬비아에서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통해 만민의 양 떼로 등록하고 갖가지 성령의 역사 속에 지상전까지 세우게 된 에드윈 성도 간증.

# 만민뉴스

제900호 2019년 8월 4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인도에서 온 편지

### "수련회 때 불치의 유전병을 치료받았습니다"

암릿 쿠마 성도 (34세, 인도 델리만민교회)



살롬!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한 후, 사소한 일상생활이지만 스스로 음식을 먹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자유롭게 글씨를 쓰는 등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되어 정말 꿈만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알지 못했던 제가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니 너무 행복합니다.

7년 전, 제 몸이 갑자기 뻣뻣해지더니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불치의 유전병'이라는 진단을 받은 뒤 제 삶은 완전히 비참해지고 말았습니다.

제 스스로 무엇을 먹을 수도 없고, 몸이 떨려 몸의 균형을 잃으니 걸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심한 우울증까지 겹쳐 아내는 결국 떠나버리고, 저는 어머니를 의지하며 살아야 했지요.

그러던 중 마해쉬 형제의 전도를 받아 2018년 2월부터 델리만민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통해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행해 나가자 몸에 힘이 주어지면서 혼자서 걷고, 조금씩 일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뒤 '2018 만민하게수련회' 소식을 전해 듣고 온전히 치료받으러 준비했습니다. 담임 김상휘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 '십자가의 도'를 들을 때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고, 하나님

앞에 금식과 기도로 회개하며 준비했지요.

드디어 2018년 8월 6일, 저희 교회에서는 200여 명이 GCN 생방송으로 만민하게수련회에 참가하였습니다(사진). 교육 후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들고 강사 이수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누군가 저를 만지는 듯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제 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몸의 떨림이 사라졌고, 어눌했던 말이 풀리고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 있었으며, 혼자 걷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수월해졌지요. 할렐루야!

요즘 저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

에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2019 만민하게수련회'도 무척 사모하며 온전하게 치료받기 위해 설교 말씀을 듣고 매일 성경을 읽으며 이곳 인도에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만민하게수련회에 많은 분이 참석해 치료와 응답,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8월 2일 금요일아침 2부 시 우리 교회 본당에서 '2019 세계 선교의 날' 행사가 GCN방송(www.gcntv.org)을 통해 전 세계 만민의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김혜은 자매(4청년선교회)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첫 순서로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2000년 이후 인도한 14차례의 해외 연합대성회와 우리 교회의 활발한 방송·문서 선교 사역을 재조명하며 주님의 명령인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에 관한 영상을 시청했다.

'2019 만민하게수련회'에 참석하는 20여 개국의 대표자들이 입장한 후에는 이스라엘 세르게이 보차르니코프(나사렛 생명교회) 목사의 인사말이 있었다.

그 뒤 해외 지·협력교회 주의 종 및 선교사, 성도들에게 꽃을 전달하며 그동안의 노고와 헌신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대신해 세계 선교에 힘써온 교역자회 회장 이수진 목사가 감사 인사와 더불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향후 세계 선교의 비전에 대해 전했다.

### 전 세계 만민을 향해 복음 전파로 하나 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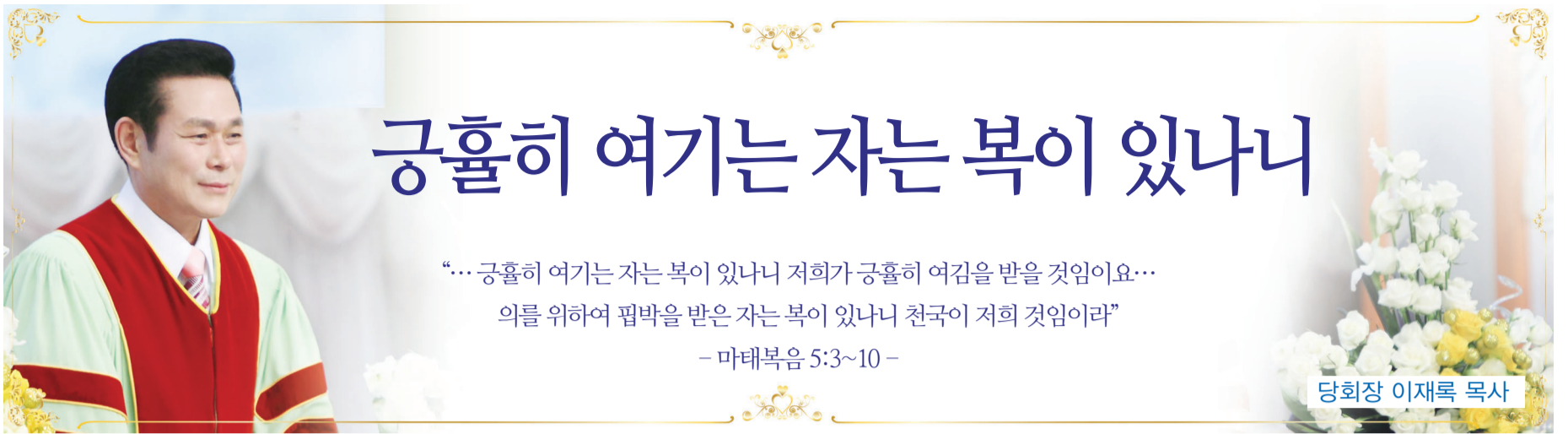
마지막 순서로, 몽골 성도들의 기예 및 무용, 페루 엘리 아스 성도의 팬플룻 연주, 몰도바 알렉산드르 파바라누 선교사와 손영락 장로의 러시아어 특송이 이어졌다. 또한 우리 교회 예능위원회 소속 예술선교단, 크리스탈싱어즈, 파워워십팀과 주사랑선교회, 중국교구에서 각각 영어권, 스페인어권, 아프리카, 북한, 중화권 복음화의 비전을 떠올리는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교회 개척 37주년을 맞아 국내외 만민의 성도들과 선교

사 및 자·협력교회 주의 종들은 전 세계 만민을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섭리를 되새기며, 더 하나 되어 세계 선교 비전을 더욱 충만히 이뤄나갈 것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 공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 공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공홀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 마태복음 5:3~10 -

당회장 이재록 목사

소설 '데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은 죄인이라도 공홀히 여기는 참된 사랑과 용서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공홀의 마음으로 용서를 베풀 때 상대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팔복 중에 하나인 공홀(矜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 1. 참된 복의 다섯 번째 관문 : 공홀히 여기는 자

공홀은 누가 죄를 범하거나 직접적으로 자신을 힘들게 할지라도 중심에서 용서하며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해 주고 사랑으로 권면해 줄 수 있는 마음을 뜻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 양선의 마음과 비슷하지만, 이보다 더 깊은 차원이지요.

양선은 악이 전혀 없으며 오직 선(善)만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다투지도 들레지도 않으시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꺾여 가는 심지도 꺾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마 12:19~20).

상대가 악을 행했다 해서 즉시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 구원에 이르기까지 참아 주며, 아직 온전치 못해 죄를 범하는 사람이라 해도 어찌하든 성령으로 깨우치고 진리 가운데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려 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설령 상대가 이유 없이 나에게 악을 행한다 해도 이해하고 용서하며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공홀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유익을 좇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야 이해할 수 있고 공홀을 베풀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코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조용히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바닥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지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공통적인 죄목들

을 하나하나 써내려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몸을 일으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나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간음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며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후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평생을 두고 잊지 못할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 2. 공홀히 여기는 마음의 다양한 형태

### 1) 한없는 용서의 공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크신 공홀을 입은 것입니다. 죄로 인해 지옥에 떨어져서 세세토록 고통받아야 했으나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상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값없이 용서받고 지옥에서 건짐 받는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수많은 영혼이 구원의 길로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통회자복 하고 돌아오면 오히려 사랑으로 품어 주시며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지도 않으십니다(시 103:12 ; 사 1:18).

예수님께서서는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마 18:22). 7은 완전수로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 하셨으니 완전한 용서, 무한대의 용서를 베풀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값없이 죄 사함을 받았는데 상대의 작은 잘못 하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판단 정죄한다면 얼마나 악한 모습이겠습니까(마 18:23~35).

상대로 인해 혹 불이익을 당했다 해도 용서하고 이해하며 포용할 때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큰마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공홀의 마음이 있다면 누구를 미워

하거나 감정을 품지 않습니다. 설령 상대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징계하기보다는 먼저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잘못된 일이 있을지라도 아랫사람은 겸비함으로 순종하고 따라주며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벧전 2:18).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잘못된 일이 있을 때에도 윗사람은 무조건 책망하거나 화평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르치고 진리로 바로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공홀히 여기는 행함이지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며 공홀 가운데 생명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권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 2) 사랑이 담긴 징계의 공홀

징계의 공홀 역시 미움이나 정죄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도 따르는 것이요, 그렇게 해서라도 죄에서 돌이켜 진리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지요(히 12:6~8).

잠언 13장 24절에 “초달을 차마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같은 징계라 해도 사랑이 없다면 공홀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징계는 미움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결코 상대를 변화시킬 수도 없지요. 비록 상대가 잘못을 범했다 해도 그 사람의 입장과 장래를 생각해 사랑으로 징계할 때라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징계의 공홀에 속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형제가 죄를 범했을 경우, 진리로 권고하고 징계하는 과정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마 18:15~17). 먼저는 당사자에게 사랑으로 권면해 돌이키게 해야 하고, 만일 권면을 듣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이 속한 모임에서 질서상 윗분에게 말해 돌이키게 해야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교회에 알려져 치리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요. 마지막으로 교회의 말도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6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월에 운행
  - 문의 :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장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듣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여기는 것이 성경상의 순서입니다.

### 3)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구제의 긍휼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긍휼을 행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믿음의 형제가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말로만 안타까워하고 행함이 없다면 긍휼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제의 긍휼은 형제가 어려울 때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약 2:15~16).

그런데 긍휼을 베풀고 구제할 때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징계를 받아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는 일이지요.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아니라 해도 육체가 강건한 사람에게 올려서 일하지 않으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런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이지요. 이런 사람을 돕는 것은 오히려 상대를 더욱 게으르고 무능한 사람으로 만

드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렵다고 무조건 구제하며 긍휼을 베풀 것이 아니라, 잘 분별함으로 구제하고자 어려움에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외면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되며,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하지요. 주위의 시선과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돕는 경우도 있는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진정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를 도와주는 것을 긍휼이라 하시며 이런 사람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 3.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임하는 복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라고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자신을 힘들게 하고 피해를 입힌 사람이라 해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긴다면, 혹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거나 실수로라도 상대에게 피해를 입히게 될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마 6:12)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비다’라는 여제자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많은 선과 구제를 베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수고하다가 병들어 죽었지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기도를 받게 함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생명을 연장 받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부요하고 강건한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며, 연약함을 강건하게 바꾸어 주시지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때 임하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고 아름다운 긍휼의 향기로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생명을 주며, 하나님의 축복하심 가운데 풍성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네요!”

권태덕 집사 (69세, 1대대 9교구)



어느 날,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 나쁜 소문을 듣고 저는 몹시 불안했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핍박해도 아내는 아랑곳하지 않고 교회에 다니던 터였기에 저는 직접 가서 어떤 교회인지 알아보고 약점을 찾아내 교회에 못 가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지요.

주일 대예배 시간에 맞춰 교회 정문을 들어서니 환한 웃음을 띤 얼굴들, 말끔한 정장이나 단아한 한복차림으로 공손히 인사를 나누는 성도들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본당에 들어서는 순간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찬양 연주가 울려 퍼져 감동되었고, 일꾼들은 친인척마냥 제게 자리를 권하며 매우 친절히 대해 주셨지요.

예배가 시작되자 저는 약점을 찾기 위해 정신을 집중해 들었지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는 성경을 모르는 제가 들어도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좋았습니다. 이후 몇 차례 더 가보았지만 약점은 찾을 수 없었고, 결국 저는 2012년 9월에 만민의 양 떼로 등록하였지요.

### 교통사고 후유증을 치료받는 권능의 역사

이전에는 신앙을 가진 적이 없었기에 저는 교인들과 얘기하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당회장님께서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분명 있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믿으세요” 하고 간곡히 눈물로 설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저도 세상 것을 버리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보기로 다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스물네 살에 교통사고를 당해 혼수상태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이따금 왼쪽 고관절에 견디기 힘든 통증이 찾아왔고, 진통제와 주사로 지탱하며

살았지요. 그것이 수없이 반복되었고, 장시간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면 고관절이 원위치에 맞지 않아서 10여 분은 절뚝거리며 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식을 통해 꼭 치료받고 싶었기에 아침 금식을 하며 약도 끊고 준비하였습니다. 세례를 받는 날도 계속하여 간절히 기도를 하였지요.

그 다음 주일, 놀랍게도 대예배를 마치고 당회장님의 축도를 받을 때 뜻밖에 제 다리의 종아리부터 뜨거운 기운이 위로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머리는 술을 마신 것처럼 핑 돌고 숨이 잘 정도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는구나!’ 싶어서 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외쳤지요. 그 후 점차 왼쪽 다리의 통증이 사라지고 고질적인 고관절의 문제도 모두 사라져 정상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 오른쪽 턱에 0.5cm 종괴가 사라지는 등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사랑의 구제

2017년 언제부터인지 오른쪽 턱 아랫부분에 무언가가 만져졌습니다. 그로 인해 가끔 찌릿찌릿한 통증이 있었으며 병원에서는 제거수술을 권했지요. 그해 5월 초, 구역 식구들을 저희 집에 모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셨던 모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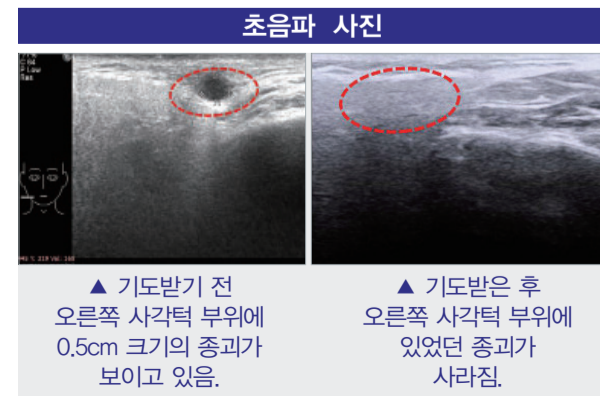
이튿날 오후 3시경, 오른쪽 귀에서 “쩍!” 하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랐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구나’ 싶어 감사기도를 드렸지요. 과연 다음 날 자고 일어나 보니 종양의 크기가 줄어 있었고, 점차 작아지더

니 며칠 만에 사라졌습니다. 참으로 놀라웠지요. 이뿐 아니라 전에는 머리가 항상 맑지 않아 잠을 안 잔 것 같았고, 걸으면 앞을 보고 똑바로 걷을 수 없어 좌우로 약간씩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다닌 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모든 것이 정상이 되었지요.

2018년 가을, 또 한 차례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앞니와 어금니가 없어서 식사할 때 음식물이 세어나오고 말도 세어서 상대가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아를 할 수 없었지요.

아내(남춘옥 집사)도 너무 오랜 시일 틀니를 사용해 이제는 자주 떨어지고, 통증으로 인해 딱딱하고 질긴 음식은 맛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회장님께서 저희 부에게 치료비를 지원해 주셔서 아내와 제가 치아로 인한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었지요. 할렐루야!

선을 찾아보기 힘든 마지막 때에 사랑이 많은 제단으로 불러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로 인도하시는 당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초음파 사진

▲ 기도받기 전 오른쪽 사각턱 부위에 0.5cm 크기의 종괴가 보이고 있음.

▲ 기도받은 후 오른쪽 사각턱 부위에 있었던 종괴가 사라짐.





# 무지개와 성령의 역사로 행복하게 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



에드윈 니노 성도 (35세, 콜롬비아만민교회)

2015년 어느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교회에 가려고 준비하던 중, 저는 엔라쎬 방송(스페인어권 최대 기독교방송)을 통해 성찬식에 관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에 관해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었지요.

저는 15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와 같은 말씀을 들었던 적이 없었기에 감탄하며 들었습니다.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설교하시는 분의 이름과 설교 제목을 알고 싶어 시청을 멈출 수 없었지요. 그것은 바로 이재록 목사님의 '십자가의 도' 21편 말씀이었습니다.

###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저는 이재록 목사님에 관해 더 알고 싶어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기 시작했고, 한국 만민중앙교회 당회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에도 지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 뒤로 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10여 편의 설교를 들으면서, 단순한 명설교가 아니라 매우 영적인 말씀이며 살아 있는 말씀임을 깨달았습니다. 같은 설교라도 반복해 들으니 하나님 마음의 넓이와 길이, 높이와 깊이를 더욱 이해할 수 있었지요.

2015년 7월 5일, 제가 사는 소가모소에서 차로 3시간

을 이동해 수도 보고타에 위치한 콜롬비아만민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직접 보니 만민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표본임을 더욱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 1월부터는 먼 거리를 개의치 않고 매주일 아들과 형, 누나와 함께 콜롬비아만민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해 8월과 10월에는 형제들과 함께 한국에 방문해 하계 수련회와 교회 창립 34주년 기념행사에도 참석했지요.

2017년 8월에는 일가친척들과 함께 만민하게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하나님과 주님에 대한 사랑은 강렬했고, 영혼들을 향한 사랑은 너무나 감동스러웠습니다. 교회 일꾼들과 성도들의 헌신에도 많은 은혜를 받아 저도 그들과 같은 마음을 이루고 싶다는 소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지성전을 세우니 성령의 역사로 영육 간에 축복받아

이후 저희 부모님까지 전도되니 장정연 담임 목사님은 소가모소에 오셔서 심방해 주곤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콜롬비아만민교회로 출석하고 싶어 하셨지만 아침 7시에 나가 밤 8시나 돼야 돌아올 수 있기에 연로하신 부모님에게는 무리한 일정이었지요.

그러자 장정연 목사님은 소가모소에 지성전을 세우면

19:11~12) 기도로 갖가지 기사와 표적을 체험했습니다.

제 경우만 해도 관절염뿐 아니라 할아버지, 아버지로 부터 이어진 유전병도 치료받았지요. 2009년에 유전병이 발병해 한 달 동안 정상적으로 걷지 못했는데, 의사는 염증 치료와 통증 완화를 위한 처방을 해 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권능을 보고도 막상 약에 의지하니 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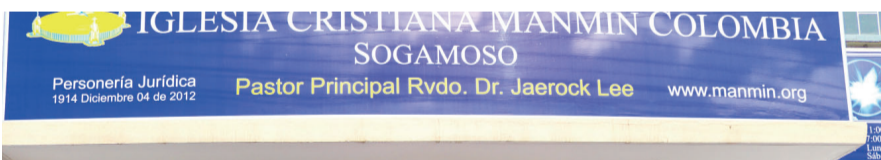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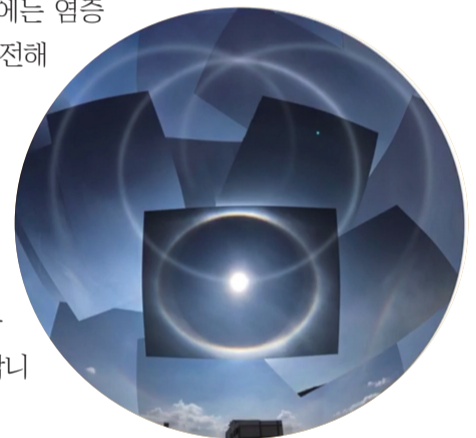
그러던 2016년, 두 번이나 같은 증상이 나타났지만 저는 약을 먹지 않고 믿음으로 담임 목사님의 손수건 기도를 받아 빠르게 회복되었지요. 2018년에도 한 차례 증상이 나타났지만, 손수건 기도를 받은 즉시 통증이 사라지고 네 시간 후에는 염증까지 사라져 온전해졌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관절염이나 유전병으로 인한 어떤 증상도 나타나지 않고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저의 어머니는 대상포진에 걸려 왼손바닥에 가려움증과 수포,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전화로 담임 목사님의 손수건 기도를 받으신 뒤에는 증상들이 사라졌지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어머니의 왼쪽 팔뚝에도 수포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날 기도를 받았기에 이미 치료됐다고 믿고 고백하자 잠시 후 사라졌지요. 이처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는 무지개도 자주 봅니다.

하나님 언약의 무지개는 저희에게 매우 특별한 기쁨을 주지요. 특히 2019년 2월 6일에는 기이한 무지개를 볼 수 있었습니다. 무지개가 하늘에 가득 펼쳐져 있어 앵글 하나에 담을 수가 없어서 여러 컷을 찍어 모아 보았지요(위 사진). 놀랍고 환상적이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며 행복하게 해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아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3-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메디피아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0-6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사천읍사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연사면 향한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사산만민성결교회 충남 서산시 예천동 650-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7118-5730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8947-7017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2213-207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아셀대로 117번길 12 ☎031)635-9103, 010-4115-1127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8927-2073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3430-3312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효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